통권 60호

www.afterschool.go.kr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방과후학교 온라인 Newsletter

2017 9월호

발행인 : 김재춘 | 편집인 : 박승재 | 편집담당 : 전보미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01 전문가 칼럼
방과후학교의
세계 동향과 시사점

02 특별기획
2017 방과후학교
국제포럼 발표 요약

03 현장 속 방과후학교
한국형 레저타임센터
(Leisure-time center)를 꿈꾸는
서울시 도봉구 마을방과후

04 초등돌봄교실 이야기
원어민과 함께
재미 톡톡(Talk Talk)
부산 양천 돌봄 BUVI 영어교실

05 방과후학교 소식
• 방과후학교 강사 온라인 연수
• 제9회 방과후학교대상(大賞)
및 2017년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공모

06 알림
• 뉴스레터 원고모집





구독 신청 방법

2017년부터는 격월로 발간됩니다.
격월 5일에 발간되는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에서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신청 : www.afterschool.go.kr Click !

방과후학교의 세계 동향과 시사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배 상 훈



방과후학교는 1995년 '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로 도입되었다. 이후 20여년동안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공교육을 지탱하는 하나의 교육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정규 수업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일종의 규제도 받아야만 하는 학교 교육의 태생적 한계, 즉 경직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개방성과 탄력성을 특징으로 하는 방과후학교의 확대에 기여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사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7월 14일 서울에서 '세계 방과후학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2017 방과후학교 국제 포럼'이 개최되었다. 홍콩, 미국, 독일, 스위스, 대만, 스웨덴, 핀란드,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 총 10개국의 방과후학교 사례가 발표되었다. 발표자들은 각국의 방과후학교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국제 포럼은 한국 방과후학교의 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방과후학교가 독립적인 교육제도 또는 활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를 주된 목표로 하는 정규 교육과정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교육 비전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운영 방식도 정규 수업의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포럼에 참여했던 발표자들은 방과후학교가 지식 전달을 위주로 하는 학습보다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경험 위주의 학습(experiential education)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 수업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체험기반 학습과 활동(hands-on activities)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사례를 발표한 하버드대학 길 노엄 교수는 방과후 활동이 참여 학생의 인지 역량 못지않게 사회정서(socio-emotional) 역량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임을 실증자료를 통해 보여주었다. 최근 인공지능, 로봇,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출현하고 일자리와 삶의 양상조차 바뀌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사회정서 역량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일하고 살아가기 위해 함양해야 하는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럼 참여자들은 방과후학교가 본연의 목표나 활동 원리를 정립하지 못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부수적 제도나 활동'으로만 기능하고 운영되는 것을 우려했다. 스웨덴 스톡홀름대학의 Anna-Lea 교수는 방과후학교가 점차 정규 교육활동처럼 변질되어가는 양상을 '방과후학교의 학교화(schoolified)'현상이라 말하고 이에 대한 깊은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방과후학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을 토대로 운영되는 일종의 공교육 활동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수요자의 선택과 프로그램 간 경쟁이 중시되는 '시장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수요자가 외면하는 방과후학교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가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이나 수요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방과후학교 참여가 어떠한 효과를 이끌어 내는지를 실증 자료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진단 도구의 개발과 활용이 요청된다. 또한 진단 도구의 적절한 활용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발달 수준이나 개인적 특성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이번 포럼에서 길 노엄 하버드대학 교수는 '전인적 학생진단 도구(Holistic Student Assessment)'를 소개하고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타이완의 데니스 후앙 박사가 발표한 '방과후학교 효과 측정 모델'도 우리 방과후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많은 나라에서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같은 단일 주체가 독점하기보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발표자들은 학교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제공하는 하나의 주체이며,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주체와 인적 ·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마을형 방과후학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의 와타나베 과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방과후학교 관련 중앙부처 간 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재정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방과후학교 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각기 지원하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연계 및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지역 공동체와 학교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다른 나라의 경우 방과후학교는 아동의 돌봄이나 학생의 지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활동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 사례이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 컬스틴 커(Kirstin Kerr) 교수는 학교의 방과후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갱생(rehabilitation)을 도모하는 맨체스터의 실험적 사례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방과후학교는 본연의 돌봄 및 학습 활동 못지않게 마을 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은 지역사회가 학교에 베푸는 '일방향 관계'보다는 상생하는 '쌍방향 활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강사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며, 이들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향후 정부차원에서 수행할 중요한 과업이라 하겠다. 또한 과학적인 교육의 질 진단 도구와 분석 체제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현행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해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01

전문가 칼럼

2017 vol.9월호 (통권 60호)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교육비 경감, 질 높은 돌봄 교실 운영, 마을 교육 공동체 확대 등을 이유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학생 참여율 제고,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방과후학교 본연의 교육적 가치 정립, 프로그램 질 관리, 마을 공동체 등 다른 교육 주체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가 요구된다. 방과후학교의 확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방과후학교를 가장 활발히 운영하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나아가 한국 방과후학교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면, 세계 각국의 방과후학교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017 방과후학교 국제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였다. 앞으로도 매년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관련 세계 각국의 동향과 시사점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세계의 방과후학교 발전을 선도하는 무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2017 방과후학교 국제포럼 내용 및 발표자 소개

01 방과후학교의 목표와 효과

발표 내용	발표자	주요 경력
Extended Education for Academic Performance, Whole Person Development and Self-fulfilment: The Case of Hong Kong (학업성취, 전인적 발달 및 자기충족을 위한 방과후학교 : 홍콩 사례)	 Atara Sivan	• 現 홍콩침례대학교 교육학과 학과장 • 前 홍콩침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 前 세계 레저 아카데미 회장
A Double Bottom Line: Increasing STEM Engagement and Life Skills in After School Programs (미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두 가지 축 : STEM 교육참여와 라이프 스킬 함양)	 Gil Noam	• 現 PEAR(Partnerships in Education and Resilience) 기관 창립자 및 이사 • 現 하버드대학교 의대 및 맥린 병원 교수 • 前 하버드대학교 위험 및 예방 프로그램 이사
The Implementation of All-day Schools in Germany: Goals, Successes and Persisting Problems (독일의 온종일 학교 구축 : 목표, 성공 사례 및 쟁점)	 Wolfram Rollett	• 現 프라이부르크대학 교수(*교육실증연구) • 前 유럽 교수-학습연구협회 교육효과성센터 운영위원 • 前 독일 All-Day School 발전 방안 연구 참여

02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 관리

발표 내용	발표자	주요 경력
Extended Education in Switzerland: A Look at the Educational Quality of the Extended Education Offerings (스위스의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고찰)	 Marinne Schuepbach	• 現 독일 밤버르크대학 교육과학대학 초등교육학과장 • 現 세계 교육연구 협회 (WERA: Worl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방과후학교 특별위원회 창립 멤버 • 前 스위스 베른 대학 교육 과학 대학 교수(2010~2014)
Quality Assurance & Sustainability for After school Programs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보장 및 지속 사능성)	 Denise Huang	• 現 HLH재단 최고경영자(CEO) • 前 UCLA 국립 교육효과성 평가센터 선임 연구원 (2000 ~ 2012) *미국 NCLB 효과성, 방과후학교 효과성 연구

03 돌봄교실과 아동 중심 접근

발표 내용	발표자	주요 경력
School-age Child-care in Sweden (스웨덴의 초등돌봄 사례와 시사점)	 Anna-Lena Ljusberg	• 現 스톡홀룸대학 사범대학 학장 • 초등교육전공
A New Child-centered Approach to the Organiza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Finnish Schools (방과후학교 활동에 대한 아동 중심 접근 : 핀란드 사례)	 Lea Pulkkinen	• 現 핀란드 유바스큘라 대학 심리학 명예교수 • 前 핀란드 유바스큘라 사회과학대학 학장 • 前 핀란드 교육문화부 지원 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 前 핀란드 방과후 교육의 질 향상 프로그램 조직 및 연구 (2002 ~ 2005)

04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발표 내용	발표자	주요 경력
Networked Social Enterprises: A New Model for Extended Schools in England (영국의 방과후 교육과 확장된 학교)	 Kirstin Kerr	• 現 영국 맨체스터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前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재생 프로젝트 연구 책임
After School Policy in Japan: Promotion of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일본의 방과후학교 정책 :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 및 협력 증진)	 Eiji Watanabe	• 現 일본 문부과학성 지역사회 학교협력과 과장 • 現 일본 문부과학성 기술이전과 과장
After School in Korea: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한국의 방과후학교 : 연구, 실무, 그리고 정책)	 Sung Jae Park	• 現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센터 소장 • 現 사단법인 미래학회 이사 • 現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육행정관 • 現 대법원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2017 방과후학교 국제포럼 발표 요약

01 방과후학교의 목표와 효과

가. 학업성취, 전인적 발달 및 자기충족을 위한 방과후학교 : 홍콩 사례

•• Atara Sivan (Professor,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 학교 차원 : 전인적 발달

홍콩은 학교 차원에서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홍콩 교육 체제는 과목-교사 중심 교육에서 전인교육, 즉 학습 과정과 성과의 즐거움에 중점을 두고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일상 생활과 다른 학습 경험(Other Learning Experiences, OLE)과 평생학습(Life-wide learning, LWL)의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부가적인 기회를 창출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체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견학,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실제적인 지도력 발휘 경험과 의사소통의 통로 구축이다. 특히 이러한 평생학습 구현을 위해 학교는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개혁으로 홍콩의 고등 교육 체제가 3년 과정에서 4년 과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 진로를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캠퍼스 밖에서의 학습 경험(예: 인턴십,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학부모 차원 : 학업 성취 향상

중국 문화의 맥락에서 학업 성취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우수한 학업 성취를 위한 사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방과후교육에 대한 기대효과 역시 학업 성취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학생 주도 활동: 자기 충족을 위한 진정한 여가 추구

학생들은 진정한 여가(serious leisure)[1]를 즐기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방과후교육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 발견, 스트레스 감소, 삶에의 충실과 풍요로움, 친구들과의 관계, 진로와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Belanger, 2015; Merriam & Bierema, 2013).

나. 미국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두 가지 축 : STEM 교육참여와 라이프 스킬 함양

•• Gil Noam (Professor, Harvard University)



최근 미국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정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관련 스킬 개발에 얼마나 초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스킬이나 창의 역량처럼 정규 과목 외에서 길러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즉 방과후학교는 학습과도 연계되어야 하지만 학교 수업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테스트하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방과후학교의 발전 과정

미국에서 방과후학교는 일하는 여성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해 시작되었다가 4H나 YMCA와 같은 청소년 발달(youth development)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고, 최근에는 청소년 비행과 위험 예방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방과후학교가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1 진정한 여가는 개별 참가자가 학습 과정을 명확하게 통제하는 의도적인, 스스로 계획하는 자기주도학습의 한 형태임(Belanger, 2015; Merriam & Bierema, 2013).

■ 방과후학교의 역할

미국에서는 청소년 발달(youth development)과 관련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고, 21세기 커뮤니티센터(21st community center)나 NCLB법을 통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학업 성취 향상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방과후학교의 학업적 측면은 학생들이 과학이나 기술 등의 과목에서 자신의 흥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정규 수업의 형식에서 벗어나 STEM과 같은 분야에서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라이프 스킬 또는 21세기 스킬로도 불리는 청소년 발달 관련 능력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양면적 성격(double bottom line)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과후학교는 학교와 분리되거나, 비학업적 공간으로 유지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잠재력 향상과 불평등 해소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 방과후학교의 최근 동향

미국에서 당초 방과후학교는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동이 다양한 경험, 체험, 실습 기반의 활동에 참여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전 가정의 자녀 중 1/4 정도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체육 활동부터 학업 및 예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미국에서 STEM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약 69%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통해 STEM 교육 활동, 특히 탐색과 체험기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관계 형성, 성인과의 멘토링 경험, 협력적 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새로운 역량과 흥미의 발견, 체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고, 팀워크과 협업 역량을 배양하며, 합리적 선택과 다양한 의견 교환의 기회 등 청소년 발달에 기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STEM 교육자들은 위와 같은 청소년 발달을 위한 교육적 장면에 비형식적인 STEM 학습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방과후학교와 STEM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PEAR 연구소'의 '방과후학교와 STEM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는 전국에서 160개의 STEM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4-12학년 1,599명의 학생들과 11개 주의 148명의 STEM 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방과후 STEM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78%가 STEM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73%는 STEM에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80%는 STEM 관련 진로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72%의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학업 지속성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고, 70%, 65%의 학생이 각각 성인 및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88%이상의 프로그램 운영자가 프로그램 종료 후 방과후 STEM 교육활동을 이끌기 위한 자신감, 능력이 개선되었고 흥미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90%이상의 운영자들이 STEM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과학, 수학은 물론 사회적 기술에 보다 자신감을 갖고 관련 역량이 증진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STEM활동 운영자 자신이 프로그램 운영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운영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과학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함양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다. 독일의 온종일 학교 구축 : 목표, 성공사례 및 쟁점

•• Wolfram Rollet (Professor, University of Freiburg)



■ 온종일 학교 구축의 목표

온종일 학교는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재능을 활용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별적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또한 온종일 학교를 통해 학부모들의 취업 가능성을 열어주고, 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온종일 학교는 추가 학습 기회,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문화 인프라를 확장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 온종일 학교의 운영 방안

독일 연방 교육 문화부장관회의(www.kmk.org)는 온종일 학교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온종일 학교는 일주일에 적어도 3일 동안 전일제를 제공함
2) 전일제는 매일 최소 7시간 활동함
3) 전일제를 실시하는 모든 날에는 참여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
4) 종일 프로그램을 운영함
   a) 교장단의 감독과 책임 하에 운영
   b) 교장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
   c) 정규 수업에 대한 개념적 연결

■ 온종일 학교 구축 현황

2002년에 전체 학교의 16.3%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종일 학교를 구축·운영하였고, 2015년에는 독일의 전체 학교 중 64.6%가 온종일 학교로 분류되었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의 온종일 학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KMK 2005, 2017).

온종일 학교 프로그램은 숙제 감독, 치유와 교정 교육, 문화 및 민주사회 학습, 스포츠, 공예, 연극, 수공예 및 합창과 같은 활동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온종일 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추가 직원(온종일 학교 선생님)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외 활동을 제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온종일 학교의 발전에 관한 연구

"온종일 학교 발전에 관한 연구"는 온종일 학교 관련한 이론을 학교, 행정 및 연방 정부에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전국 규모의 대규모 연구이며, 이는 연방 교육 연구부와 유럽 사회 기금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전형적인 CIPO(Context-Input-Process-Output) 모델로서, 이는 고전적인 CIPO 접근법과 수업 모델의 활용을 결합한 것이다. 이 이론적 체계에 따르면, 학생의 학습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 기회와 개별 학생이 참여하는 학습 활동의 상호 과정으로 인식되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 온종일 학교교육의 긍정적인 성과로 인해 학부모는 학교에 숙제 감독, 양육 문제 지원, 경력 향상 및 취업 또는 평생교육을 요청한다.

둘째, 5학년에서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데이터로 종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종일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 학교 성적, 학교 만족, 성취동기가 증가하였으며, 유급 위험이 감소하였다.

셋째, 학생들은 추가 학습 시간을 좋아하지만, 학교 교과 관련 학습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중간 정도이다.

넷째, 온종일 학교 참여율은 3학년과 5학년 때 약 60%에 불과했고, 참여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참여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참여한다.

다섯째, 추가 학습 시간과 정규 수업 간의 개념 연계가 약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02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 관리

가. 스위스의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고찰

Marianne Schupbach (Professor, University of Bamberg)



■ 스위스의 방과후교육 현황

스위스에서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교육이 지난 15년 동안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제시된 다양한 모델 중 '종일 구조'(Day Structures)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종일 구조는 출생에서부터 의무 교육(또는 특수 교육에서는 20세까지) 기간[2]동안 아동 및 청소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족 이외의 모든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종일 구조의 일종인 온종일 학교는 일주일 중 며칠은 점심 식사를 포함한 온종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이다(EDK, 2013). 일반적으로 학교장의 관리 아래 책임자가 방과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과외 활동인데, 일부 온종일 학교는 의무적으로 방과후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정규 교육 시간 이외의 일정 시간에 방과후교육에 참여하는데, 선택적인 모듈식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출석 온종일 학교가 훨씬 더 많다(Schuepbach, 2010).

■ 방과후교육에 대한 기대와 동기 그리고 수강 이유

방과후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한 대응책으로 간주되며, 그 기대효과 또한 다양하다. 온종일 학교는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 및 활용에 다음과 같이 기여하고 있다. 첫째,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과 학부모의 취업 활동에 도움을 준다.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친구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경험하고 독립심을 기르게 한다. 셋째, 사회로 진출하는 학교 졸업자들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넷째,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이밖에도 온종일 학교를 확고히 하기 위한 동기에 관한 연구로 "EduCare: All-day School and School Success? study(N=349)"에서 학부모들이 온종일 학교를 활용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스위스의 독일어권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의 성장이 학업 성취도 향상보다는 교육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정치적 논쟁을 줄이고 상호간의 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오늘날 스위스의 온종일 학교의 성장에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오직 부차적인 역할이라는 인식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인다.

■ 방과후학교의 법과 교육 원칙

스위스의 26개 주는 각기 다른 교육 조직을 갖고 있지만 주 당국은 교육 문제에 관해 연방 정부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EDK & SODK, 2008). 따라서 방과후교육 조직에 대한 국가 지침은 없으나, 일부 주는 공립 학교법에서 방과후교육 '제공(offering)'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 방과후교육 '제공'의 질

방과후교육의 '제공(offering)'의 효과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 Schuepbach(2010)에서 스위스의 교육적 질에 대한 표준화된 조사 결과 온종일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교육 '제공(offering)'의 질은 평균 4.65(7점 만점)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교육)관련자 성장은 5.12, 상호작용의 질은 5.13, 활동의 질은 3.95 증가 양상을 보여 상대적으로 활동의 질에 대한 성장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방과후교육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놀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온종일학교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운동, 스포츠, 수공예 및 미술 활동을 지시된 활동으로 제공(Guided activities refers to activies)하고

2 스위스는 7-14세까지는 모든 주에서 무상교육이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온종일 학교에는 학습 환경과 '제공'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미국의 방과후교육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순차적이고 활동적이며, 집중적이고 명시적인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이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보장 및 지속 가능성

Denise Huang (CEO, HLH Foundation)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보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같은역할을 수행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요청된다.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가족 및 지역 사회에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a) 환경(Environment), (b)프로그램 조직(Program Organization), (c)교육적 특성(Instructional Featrues)이 포함되며, 이 영역들은 2008년 캘리포니아 정책 연구 센터(CPRC)의 연구물에 기반한 것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기준 및 지표로 지지되고 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진단 도구 활용한 자체 평가 프로세스를 조직 의사 결정에 연결하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체 평가는 외부 모니터링과 평가의 압박이 가해지기 전에 내부에서 프로그램이 지닌 강점을 찾고 약점을 제거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계속적인 자체 평가를 통한 자가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필연적으로 개선점 모색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들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자가 모니터링 절차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기능 및 목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토의에 교사, 학생, 기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진단도구를 활용한 체계적인 계획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 과정이 수반될 것이다. 첫째, 프로그램의 철학과 측정 가능한 교육 목표를 설정한다. 둘째, 모니터링 절차를 구축한다. 셋째, 학생들의 수행 결과를 평가 또는 분석한 후 요약한다. 넷째, 요약된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목표를 재설정한다.



03 돌봄교실과 아동 중심 접근

가. 스웨덴의 초등돌봄 사례와 시사점

Anna-lena Ljusberg (Professor, Stockholm University)



■ 초등돌봄[3] 의 변천 과정

1960년대까지, 학교에서 운영되는 초등돌봄에 대한 주된 관점은 놀이와 휴식(rest)이었다(Rohlin, 2001). 그러나 1990년대에는 초등돌봄이 교과과정에 편성되고 이는 놀이적 관점(recreational pedagogical)에서 교육적 관점(educational pedagogical)으로 사고가 변화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Rohlin, 2012). 이에 따라 스웨덴 교육부(Swedish National Education Agency)는 학교, 초등돌봄 및 유치원에서 일반 지침이라고 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였다. 초등돌봄은 학교에 국지적으로 통합되었으며, 초등돌봄교사는 학교 교사와의 상호 작용이 점차 증가되었다. 칼란더(Calander, 1999)는 이러한 점에 대해 초등돌봄이 잠재적으로 '학교교육'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통합이 초등돌봄교사들이 직업적 역할(돌봄의 성격)과 교육적 성향(교육적 성격) 모두가 더 두드러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Persson, 2008; Torstensson & Johansson, 2000).

■ 초등돌봄 교원 양성 시스템

초등돌봄에서 교육의 의미는 점차 확장되어, 보육과 발달 및 학습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초등돌봄교사 역시 교육적 사고가 필요하며 초등돌봄교사 양성 교육(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 및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교육은 교육과학핵심과정(ESC:education science core)과 실습기반교육으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ESC의 경우 다양한 철학, 교육학, 아동 및 청소년학, 수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실습기반교육은 약 10주 정도 이루어지며, 학교나 독립적인 초등돌봄센터에서 실시된다.

■ 초등돌봄 교원 양성을 위한 제언

현재의 초등돌봄교사 양성 과정에 대해 초등돌봄이 '학교교육'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그 결과 초등돌봄교사와 학교 교사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초등돌봄교사가 학교 교사의 관점을 채택하고, 반대로 학교 교사는 초등돌봄교사의 관점을 채택하여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초등돌봄 시간에도 체계적인 활동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오히려 자유활동에 대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등돌봄교실에 있어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구현해야 한다. 초등돌봄의 초점이 학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초등돌봄의 특별한 성격을 점차 잃어갈 위험이 있다.

나. 방과후학교 활동에 대한 아동 중심 접근 : 핀란드 사례

Lea Pulkkinen (Professor, University of Jyvaskyla)



■ 핀란드 방과후활동의 발전과정

핀란드의 방과후(아침돌봄 포함)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윤리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유능한 돌봄 인력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 핀란드의 방과후활동은 1947년 교사주도형 방과후클럽으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들은 별도의 비용을

3 발표자가 사용한 'School-age child-care'표현을 '초등돌봄'으로 해석함

지불하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불황으로 학교와 탁아소를 위한 예산이 감소되자 방과후클럽 활동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침체기를 겪게 되었다. 2004년 학교입법안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사기업, 교회, 협회 또는 학교 등과 함께 방과후활동을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8-2014년에는 예산이 증가하여 60%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였다. 2015년 핀란드 정부는 방과후활동 지원전략을 교사중심에서 아동중심적, 멀티전문가적(multi-professional)으로 변경하였다.

■ 아동 중심의 방과후활동

정부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 일과 중 신체활동은 학생 1인당 1시간으로 조정하였으며, 예술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교로 초대되어 교사와 함께 방과후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게 방과후활동을 조직할 강제적 의무가 없고, 프로그램의 질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활동은 아동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통합적 학교생활 프로그램(Integrated School Day program)과 법규개정의 필요성

방과후활동, 아침돌봄, 정규클럽활동 등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방과후활동 참여와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통합적 학교생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로 아동중심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동의 의견과 희망, 발달단계 상의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활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활동을 조직하여 공간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방과후활동을 학교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멀티전문성이 요구된다. 즉, 예술인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학교 문을 개방하여 교사가 이들과 함께 방과후활동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합적 학교생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주 16-24시간의 짧은 수업시간, 학교 개방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정착과 함께 관련 법규개정이 필요하다. 핀란드에서는 이를 위한 시도가 차츰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입법안 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적시에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면 새로운 문화가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옛것은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핀란드 학교의 새로운 문화를 위한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다.



04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가. 영국의 방과후 교육과 확장된 학교

Kirstin Kerr (Professor, University of Manchester)



■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의 개념

영국에서 방과후학교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시간 외 교육(out-of-hours)이고, 다른 하나는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이다. 시간 외 교육(out-of-hours)은 일반 학교 일정에 문화적, 학습적, 여가 활동이 추가된 방과후활동을 의미하고,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는 광범위한 의미로 수요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의 건강, 돌봄, 일자리, 지역사회의 결합, 교육적 결과 등과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규 교육과정 외의 활동을 의미한다.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는 2000년대 초반부터 영국에서 시행되었으며, 학교가 전통적인 교과목 중심 수업을 넘어서서 학생과 그들의 가족,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중심적인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학업 성취, 건강과 복지, 민주적 참여, 경제적 활동 및 지역사회 안전과 같이 광범위한 성과 달성을 위해 학생과 가정,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변혁적인 역할을 학교가 수행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의 정책 및 사례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에 대한 초기 정책안은 학생의 가족이나 지역사회 맥락에서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고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0년에 보수당과 자유 민주당의 연합 정권에 의해 폐기되었으며, 현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를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와 지역사회는 활동의 제공을 강화하며 최근까지 "확장된 학교(extended schools)"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사례로서 'City Academy'를 들 수 있다. 'City Academy'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간에 협력하면서 학교에서 행해지는 학업 외 건강, 취업, 지역 사회 안전 관련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학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고 학교 시스템과 구조를 재구성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City Academy'가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일지 모른다.

나. 일본의 방과후학교 정책 :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업 및 협력 증진

Eiji Watanabe (Director,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 방과후학교 정책 발전 배경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를 당면하고 있고 지역 사회의 교육적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 학교 내 따돌림, 학교 폭력,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학생의 증가, 특수교육 대상자와 빈곤층 자녀의 증가 문제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 감소와 지역발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 경제, 지역 공동체,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 등이 포함된 복합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 방과후학교 정책 발전 과정

2015년 12월, 문부성은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협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학습과 교육을 위한 지역 공동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중앙교육심의회는 '학교경영구조 개혁방안' 및 '교사의 자질과 역량 함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문부성은 위의 세 가지 보고서를 구체화하기 위해 '차세대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17년에 사회교육법이 개정되었고, 교육위원회는 '지역 공동체 협력 네트워크(community cooperation network)'를 구성하여 학교 교사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정부에서 '지역 공동체 협력 활동(community cooperation activities)'을 위해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그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부성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학교가 다양한 지역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재생을 위한 교육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과후학교 정책 현황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역 공동체 협력 활동'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문부성은 "학습과 교육을 위한 지역 공동체 협력 활동 증진 프로젝트"로 불리는 보조금을 편성하였다. 이 보조금은 2017년 6.4천만엔의 예산을 확보·운용하였는데, 지역 코디네이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토요 프로그램 운영 등에 투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장소에서 방과후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책임감있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부성과 건강노동복지부(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는 협력하여 "방과후학교 종합 방안"을 만들었다. 건강노동복지부는 '방과후 아동 클럽(After-school children club)'을 운영하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또한, 문부성이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은퇴교사, NPO 등과 협력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과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위와 같이, '방과후학교 종합 방안'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방과후 아동 클럽'의 협력을 증진하고, 2019년까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방과후 아동 클럽은 전국 20,000개의 초등학교에서 통합적·파트너십 방식으로 운영하며,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방과후 아동 클럽은 300,000이상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치하며, 적어도 80% 이상의 클럽이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

'방과후학교 종합 방안'의 일환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아동 클럽'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공동체 협력 네트워크'와 같은 협력 방안을 구현하려는 시교육위원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지역 공동체 협력 네트워크'의 활동을 확대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시교육위원회가 학교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학교와 지역 공동체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교 교직원과 지역 주민에게 '지역 공동체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개념을 공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협력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 운영 지침과 관련 통계 및 정보의 제공, 성공 사례의 공유 및 확산을 정보 제공 등의 면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 한국의 방과후학교 : 연구, 실무, 그리고 정책

Sung-Jae Park (Director of Center for After School Research,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1995년 교육개혁 과제로 제시된 방과후교육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2004년에는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교육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방과후교육을 확대·실시하였다. 이후, 방과후 활동은 하나의 복지 제도로 인식되면서 소외 학교 및 학생 대상의 교육 복지 실현과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 차원을 넘어서 비영리 법인, 단체 및 대학 운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한국의 11,612개의 학교(초등학교 : 5,934개, 중학교 : 3,186개, 고등학교 : 2,492개)에서 538,108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 한국 방과후학교 연구 동향

방과후학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방과후학교의 효과 분석 연구, 방과후학교 정책 특성 연구,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방안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정책이 현실 상황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제도의 성숙기에 발생하는 참여율 저하현상의 원인을 탐색하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나 ICT 활용 모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효과 분석 연구들은 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학업성취도 향상, 학생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 효과 등을 분석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정책 특성 연구는 임연기(2015)에서 방과후학교 정책의 추진 과정과 특성을 분석하면서 방과후학교에 내재된 정치적 성격과 부수적 교육효과에 맞춰진 현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윤홍주·오범호(2016)의 방과후학교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 분석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 이해 당사자의 인식 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에서 돌봄 역할에 대한 강조나 선별적 복지의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방안 연구로서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방안 연구(김홍원 외, 2010)와 중장기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편방안 연구(배상훈 외, 2012), 방과후학교 지역사회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모형 및 사례 연구(강신천 외, 2017; 임선하, 2017) 등이 있다.

■ 한국 방과후학교 운영의 실제

한국의 방과후학교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특기·적성, 교과,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방과후학교와 특별히 초등돌봄교실로 나눌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수익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방과후학교 관련 회계는 「국·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사학 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운영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두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가 지역 내

방과후학교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한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의 한 영역으로서 초등학교내에서 필요 시설을 갖출 돌봄교실에서 운영되는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이며, 간식비 외 무상으로 오후돌봄(방과후~17:00, 18:000까지 연장 운영 가능), 저녁돌봄(17:00~22:00), 학교 여건에 따라 오전 수업 전의 아침돌봄도 운영 가능하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돌봄교실에는 일정한 자격(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 등)을 갖춘 돌봄전담사가 배치되어 운영 시간 동안 학생들을 관리하며,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학교교원들이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밖 돌봄에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들이 서로 협력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개 중앙정부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지역의 돌봄 서비스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지역 돌봄협의체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기준 전국 5,972개 학교(초등학교의 96.2%)의 12,380개 돌봄교실에서 240천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한국 방과후학교의 정책

한국 방과후학교 정책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의 단계적 구조로 추진체계가 운영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된 한국 정책적 구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을 관할하지 않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 하고 있다.

종래에는 방과후학교의 내실화된 운영을 위해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농산어촌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지원, 방과후학교 우수 사례 보급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지원 관련한 정책을 수행해왔다. 이에 더 나아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방과후학교 정책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온종일 마을학교를 표방하여 그 대상을 확대한 온종일 돌봄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교 안 마을학교(A형)와 학교 밖 마을학교(B형)을 구축하고, 아침돌봄학교 설립 및 방학, 계절학교(섬머스쿨, 윈터스쿨)도 운영하는 지역의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형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를 꿈꾸는 서울시 도봉구 마을방과후

서울시 도봉구 마을방과후활동운영 센터장 | 박 동 국



■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의 의미.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는 스웨덴의 학교 안과 지역 곳곳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여가 활동 센터로서 방과후에 예술, 스포츠, 독서, 프로젝트 활동, 낮잠, 기타 활동을 위한 종합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1~3학년의 모든 학생이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설립된 각 지역의 레저타임센터는 청소년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도(도봉구의 사례)

2014년 7월 이후 교육 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2015년 1월 혁신교육지구 지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자연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키우는 사람 중심 교육 도시"의 비전으로 마을 교사의 학교 협력 수업 실시,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도봉혁신교육 박람회,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 혁신교육활동가 양성,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으로 혁신 교육 도시로 출발했다. 그 후 2017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3년차 성과로서 학교와 마을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활성화,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 등 혁신 교육 공동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아동과 청소년이 갈 곳이 많은 도시, 지속 가능한 교육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도봉구의 민(民)·관(官)·학(學)은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나가고자 한다.

1. 도봉구 학교의 시도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절실하다. 마을 안에 위치한 학교가 마을과 단절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마을과 실질적이며 물리적인 결합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계획 편성 및 운영에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반영하고 학생들이 거주 마을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실질적인 마을 배움 활동으로 교육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학교 내에 마을 자원과 함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혁신학교[1]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사, 학부모, 마을, 교육청, 구청이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상호간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16년 부터 도봉구청이 지정·운영하는 '도봉 꿈의 학교[2]'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학교와 마을의 협력의 모델을 창안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2. 도봉구 마을의 시도

도봉구를 마을 교육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내세우기 위해 공동 육아 협동조합, 방과후 돌봄 협동조합, 방과후학교 협동조합, 먹거리 협동조합, 학부모 협동조합, 마을교사(활동가) 협동조합, 마을학교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형태를 제안한다. 또한 마을 극장, 마을 음악회, 마을 놀이터, 마을 시장, 마을 운동회, 마을 축제, 마을 도서관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마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을 협동조합의 자원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1 도봉구 혁신학교: 도봉초, 월천초, 북서울중, 효문고, 쌍문초(2017년 지정)
2 도봉 꿈의 학교: 방학초, 창림초, 누원고, 자운고, 정의여고

위해서는 마을, 학교, 행정 기관 등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마련과 참여 의지가 요구된다.

3. 도봉구청의 시도

도봉구청은 마을과 학교의 충실한 가교 역할이 요구되는데, 혁신교육박람회는 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동 친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아동·청소년 문화 공간(쉴 곳, 놀 곳, 즐길 곳, 배울 곳)을 확충하며, 융통성 있는 행정 절차 수립 및 현실적인 재정 집행으로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을학교의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

학교	도봉구청(마을방과후활동 운영센터)
교과 방과후 학교 전담운영	**비교과 방과후 학교 전담 운영**
수강료 징수 업무 -분기별 도봉구청에 일괄 강사료 지급 -수강료 환불 -재료비, 교재 지급 업무	**프로그램 개설 및 질 관리**
수강 모집 안내서 배부 및 신청서 수합	**강사선발 및 관리**
자유수강권 대상자 파악 및 관리	**학생안전관리**
교육장소 제공	**수강모집 안내서 제작(학교에 제공)**
도봉구와 원활한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	**월별 강사료 지급**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업무(선택)	**마을방과후활동 보험 가입**
	학교와 원활한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

2018년 교육비 공제, 자유수강권(도봉구로 직접 지급) 문제 해결시 도봉구에서 직접 수납업무 진행

■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

1. 도봉구의 방과후학교 직접 운영 준비 과정과 운영방법

도봉구는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학교와 마을에서 다양한 교육적 시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마을 연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도봉구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활성화 방안'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도봉구 관내 학교가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도록 꾸준한 지원을 계속 하였다. 그 결과 2016년 12월 도봉구 관내 5개 학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도봉초, 방학초, 신방학초, 월천초, 방학중학교와 함께 하게 되었다.

○도봉구 아동·청소년 방과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실시 (2016.4.)

○서울시교육청 마을과 함께 하는 방과후학교 TF 위원 참여 (2016.4.25.~7.4.)

○ 서울시 교육감 자치구 구청장 '마을방과후학교 간담회 실시 (2016.9.19.)

○ 서울시교육청 '마을방과후학교' 시범 운영 희망자치구 조사 (2016.09.21.)

○ 서울시교육청, 희망자치구 '마을방과후학교 시범운영 협의회 (2016.9.30.~10.31.)

○ 도봉구 ⇔ 서울시교육청 마을방과후학교 업무협약(MOU)체결 (2016.11.07.)

○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시범학교 참여 수요조사 (2016.12.13.~12.16.)

○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시범학교 운영 (2017.1.1.~18.2.28.)

○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학교 확대 (2018.3.1.~)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관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역할을 새롭게 하여 학생들의 돌봄을 포함한 교육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2017년의 시범기간이 끝나면 도봉구 관내 초·중학교(총 36개교)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도봉혁신교육 추진에 따른 성과(2015~2017)>

구분	주민 설계형 마을 학교	거점 마을 학교	마을 교사	권역/동별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사업	청소년 동아리 및 프로젝트 지원사업
2015	25개소	8개소	210명	-	55개 팀
2016	71개소	8개소	344명	권역별 사업 4개	64개 팀
2017	93개소	10개소	510명	행정동별 사업 6개	88개 팀

2. 도봉구 마을방과후의 청사진 : 한국형 레저타임센터 (Leisure-time center)

도봉구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과 혁신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학교는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등 지자체와 학교의 일상적인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교육 영역으로 흡수되려던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공공의 영역으로 이끌어내고,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마을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에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지역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처럼 도봉구의 학교와 마을 곳곳의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방과후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는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국형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를 설립·운영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한국형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 안에서는 현재의 방과후학교에서 운영되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마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초등돌봄교실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만족스러운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봉구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를 직접 운영·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민(民)·관(官)·학(學)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지역의 공공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케스트라학교-씨앗지역사동센터



'도봉 문화유산길 걷기' 수업중-희망동 마을학교



로봇드림팩토리-창동청소년수련관



"한지야 놀자!? 공예 수업 중-한지사랑



도봉산 숲속 생태여행-숲 해설사와 함께



보는 음악, 느끼는 음악-유리드믹스



동네방네 미술관-Dq갤러리(도봉시민큐레이터)



오케스트라 수업-드림챔버앙상블

원어민과 함께 재미 톡톡(Talk Talk) 부산 양천 돌봄 BUVI 영어교실

부산 양천초등학교 교사 | 김 헌 정



양천초등학교는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교생 213명, 12학급의 소규모 학교이다. 취약계층이 밀집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희망학교로 저소득층,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학생 등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전교생의 40%에 이를 정도로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학교의 특성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교육 격차는 특히 노출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영어 교육에서 두드러졌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 중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영어 교육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는 부산광역시 예산 지원 사업인 돌봄 BUVI 영어교실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돌봄교실 아동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함은 물론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고 세계화 시대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작은 걸음을 하고 있다.

■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영어 수업

돌봄 BUVI 영어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첫 번째 방침으로 둔 것은 참여 아동들에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강사와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원어민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부산 여성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일환인 결혼 이주 여성들을 외국어 전문 강사로 양성하는 'Talk Play Learn'이라는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 사업단 소속의 원어민 강사 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다. 강사 채용 과정을 거쳐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매일 1시간씩 원어민 강사와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며 동시에 해외이주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생활 속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충분히 듣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영어와 친숙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와 챈트, 노래, 신체 표현 위주의 수업을 통하여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영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영어 노래 부르기를 통해 간단한 영어 표현을 반복해서 듣고 따라 부르면서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었으며, 큰 소리로 부르는 활동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길러 주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영어 뮤지컬 수업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노래를 부르며 신나고 즐겁게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뮤지컬 작품을 친구들과 함께 완성하고 발표한 후 아이들이 느끼는 보람과 자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여름, 겨울 방학에는 특강으로 전세계 어린이들에 사랑받고 있는 그림책 작가 Eric Carle의 그림책으로 스토리텔링 수업을 하였다. 원어민 강사가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노래, 율동, 만들기,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영어책에 흥미롭게 다가서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다양한 수업

04 초등돌봄교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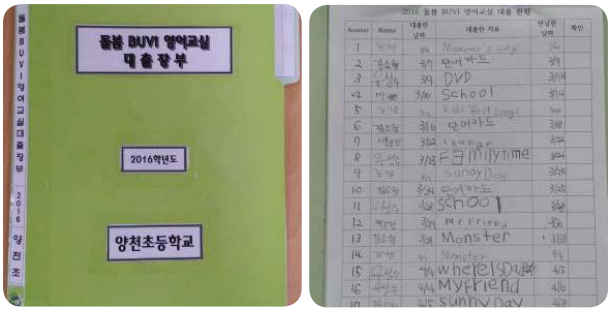
2017 vol.9월호 (통권 60호)

■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스스로 하는 영어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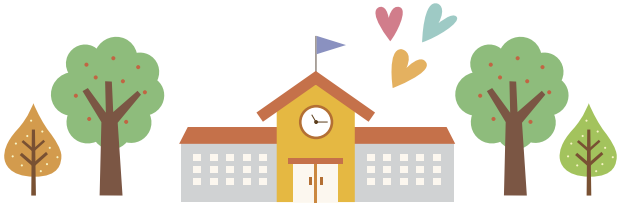
영어 학습은 수업을 통한 학습만큼이나 독서가 중요하다. 책을 읽으면서 영어적 감각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고 영어권의 정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봄교실 환경 또한 스스로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각자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영어책들을 구비해 놓았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책들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 명작들로 이루어진 책들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책을 혼자서 읽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DVD와 세이펜[1]도 구비해 놓았다. 또한 돌봄교실의 영어책과 DVD를 가정으로 대여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영어 학습이 학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스스로 하는 영어 학습



도서 및 DVD 대여 장부



■ 다양한 영어 행사 및 체험 활동으로 더욱 신나는 교실 만들기

다양한 영어 행사 및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학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익히며 영어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속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가. 애니메이션데이

월 1회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영어 표현을 익히며 영어 학습에 대한 자발적 동기 향상을 도모하였다.

나. 할로윈데이

미국의 축제 중 하나인 할로윈을 체험해보는 날로서 우스꽝스러운 복장이나 무서운 귀신 복장을 준비하기도 하고 선생님께 사탕과 과자도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어권 문화를 경험하며, 원어민 선생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 현장체험학습

영어권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관람하러 가기도 하고, 부산영어도서관을 찾아 영어책 읽기 및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가족과 함께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치즈스쿨 영어 체험장을 방문하여 치즈 및 피자 만들기, 골프 및 론볼링 레슨, 동물 먹이주기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생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라. 발표의 장 마련

교내 학예 행사 및 돌봄 BUVI 영어교실 성과 보고회에 참가하여 평상시 수업시간에 익힌 노래 및 뮤지컬 등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지역사회 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1 책에 쓰여 있는 단어나 문장에 펜을 가져가면 정확한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는 기기이다.


애니메이션데이


할로윈데이


영화관람


영어도서관


치즈스쿨 영어체험장


교내 학예 행사 발표 참가


돌봄 BUVI 영어교실 성과보고회 학생 발표 참가



지역사회 요양원 위문 공연

돌봄 BUVI 영어교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향상된 것과 더불어 학생들이 영어를 친숙하게 느낀다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돌봄 BUVI 영어교실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처음 접하는 영어를 싫어하고 수업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동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현재는 원어민 강사와 자연스럽게 인사도 나누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하고 재미있어하는 변화를 보였다.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뮤지컬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업무담당자로서 뿌듯함도 느꼈다. 이와 같이 돌봄 BUVI 영어교실을 통해 가지게 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영어 학습을 꾸준히 이어나가 세계의 무대에서 꿈을 펼칠 미래의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끝으로 작년 돌봄교실 2학년 한 학부모의 소감문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름	김 * *	구분	학부모
제목	주 5회 영어수업, 그것도 원어민 수업이라니!		

저는 2학년 딸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딸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에서 숙제, 일기도 봐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해서 안심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에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긴 시간이지만 돌봄교실에서 아이가 재미있게 잘 생활하고 있어서 아주 만족합니다. 하지만 저도 학부모인지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에 있어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3학년부터는 영어도 배우게 되는데 혹시 3학년이 되어서 못 따라 가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위의 오빠가 공부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영어를 모른다는 생각에 이미 거부감을 갖고 있는 듯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만 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돌봄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매일 해준다고 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더욱이 원어민선생님과 함께 공부한다고 하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일반 영어학원비가 얼마나 바싼지 알고 있기에 돌봄교실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할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고, 더욱이 학교 안에서 돌봄교실에 있는 시간 중에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도 되었습니다. 저의 욕심이겠지만 돌봄 BUVI 영어교실이 계속해서 운영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소식

방과후학교 강사 온라인 연수

- **목적 :** 방과후학교 위탁강사의 업무역량 제고
- **내용**
  -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와 운영
  - 학생·학부모·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 **신청방법 :** 한국교원연수원 홈페이지 (www.hstudy.co.kr)
- **신청기간 및 연수기간**

기수	신청기간	연수기간	이수증출력일
8기	2017.09.20.(수)~09.27.(수)	2017.08.30.(수)~09.19.(화)	2017.09.20.(수)
9기	2017.10.11.(수)~10.18.(수)	2017.09.20.(수)~10.10.(화)	2017.10.11.(수)
10기	2017.10.11.(수)~10.18.(수)	2017.10.11.(수)~10.31.(화)	2017.11.01.(수)

※ 연수는 총 11기로 진행되며(2017.04.05.~2017.11.21.), 각 기수의 연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9회 방과후학교대상(大賞) 및 2017년 100대 우수 방과후학교 공모(예정)

- **목적**
  - 방과후학교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을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 사례 정보 공유
- **주최/주관**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

※ 정확한 시상 내역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에 추후 공지됩니다.

※ 제1회~제8회 방과후학교 대상(大賞) 관련 내용은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림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11월호 원고 모집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정책, 운영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안내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2014년 7월부터 웹진 형식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다루고자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대상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유관 기관 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학계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을 둔 학부모



방과후학교 뉴스레터는 발신 전용입니다.
본 메일을 앞으로 수신하지 않으실 분은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 집필자의 원고 내용은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립니다.

2 모집 분야

	항목	내용
1	전문가칼럼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관계자(전문가) 칼럼
2	현장 속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 소개, 운영현황, 우수사례 등
3	돌봄교실 이야기	•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방과후학교(초등돌봄) 이용후기
4	방과후학교 소식	• 지역별 방과후학교(초등돌봄) 행사 및 연수 안내

3 배포 대상

- 교육부 • 17개 시·도 교육청 • 원고 집필자
-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신청자 (교사, 강사, 학부모, 학생 등)

4 제출 방법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 메인화면에서 뉴스레터 원고투고 신청

5 연락처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전보미 연구원(jbomi@kedi.re.kr/043-5309-555)

6 기타

- 제출된 원고는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 선정된 원고의 투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 319호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043-5309-555
copyright© 2015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